使役句研究小考
-英·中·韓·日 心理動詞 對照를 中心으로-

이영희**
liyingji@deu.ac.kr

<目次>

1. 들어가며
2. 심리동사의 의미 기능
2.1 심리동사의 기존 연구
2.2 심리동사의 의미 기능
2.3 심리동사의 유형학적 사례
3. 심리동사의 통사적 기능
4. 마치며

主題語: 경험자(experiencer), 목적어경험자(object experiencer), 심리동사 (psychological verbs), 사역주(causer), 사역동사(causatives), 상태성(stative), 비대격(unaccusative), 대조연구(contraposition)

1. 들어가며

일반언어학에서 통사론과 형태론을 통한 사역문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Hale & keyser 1993, Pylkkänen 2002, Lin 2004, Mateu 2002, Folli & Harley, Harley 1995/2008, Miyagawa 2011). 사동에 대한 연구는 유형학적으로 접근하여 볼 때 통사-의미론적 특징과 통사구조의 문제, 그리고 사동사의 형성과 관련된 어휘부와 통사부의 기능 분담 문제로 논의할 수 있다. 유형학적으로 보아도 형태사동(morphological causatives), 어휘사동(lexical causatives)과 통사사동(syntactic causatives)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다름에 따라 사동문에 대한 고찰이 다르다.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를 보아도 중국어에 형태사동은 존재하지 않으며 고대중국어에 성조를 통한 사동이 존재했다.[1] 한국어나 일본어도 영어처럼 형태 변형을 통한 사동이 존재한다. 반면에 중국어는 어휘사동이 존재하는데 이는 명사, 형용사로부터 기원한 사동동사와 복잡한 사역구조(사역-결과 구조, 사역-이동 구조, 시간소비 구조)를 통하여 사역문이 생성된다. 본문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중국어학과 부교수

1) 梅祖麟(1991)에 의하면 상고시대중국어는 청음과 탁음으로 사동사와 자동사를 구분하였으며 六朝의 顔之推『顔氏家訓』에서「军自败为败, 打败人军曰败」중 두 번째 '败'에 반절청성(反切清声)(补败反)이라고 표기하여 청음으로 사역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은 심리동사를 통하여 경험자의 심리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역문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심리동사(psychological verbs/psych verbs)는[2] '무서워하다(fear)'와 '겁먹게 하다(frighten)'처럼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심리적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거나 혹은 심리적인 상태의 변화를 유발함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심리동사는 일반적으로 타동사(Levin 1993)이며, 2개의 논항을 동반하는데 하나는 경험자(experiencer), 즉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개체이고, 다른 하나는 자극(stimulus)이다. 어떤 때에는 주제(theme), 사역주(causer), 운동하는 물체(object of motion), 감정의 타겟(target of emotion), 혹은 현상(phenomenon)들이 심리상태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동사들이 논항층차가 예측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경험자를 한 위치에 매핑하고, 자극을 다른 위치에 매핑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심리동사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는데 경험자가 주어로 실행되는 그룹과, 경험자가 목적어로 실현되는 그룹이다(Belletti & Rizzi 1988, Grimshaw 1990, Pesetsky 1995). 논의의 편리를 위하여 우리는 전자를 주어경험자 심리동사(subject experiencer psychological verbs), 후자는 목적어 경험자(object experiencer psychological verbs)심리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1) a. Enhee fears/likes/adores this dog. (주어경험자)
(은희는 강아지를 무서워하다/좋아하다/귀여워한다)
b. This dog frightens/disgusts/amuses Enhee. (목적어경험자)
(강아지는 은희를 겁먹게/역겹게/즐겁게 한다)

(1b)와 같이 '겁먹게 하다(frightens)'로 나타낸 것처럼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는 늘 타동사이며, 목적어위치에 경험자가 위치한다.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를 또 심리적 사역동사(psychological causatives)[3]라고도 한다. 이런 심리적 사역동사들은 적어도 두 개의 복잡한 차사건(subevents)을 나타낸다.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의 원인(cause)이 됨을 가리킨다.[4] 그러나 (1a)의 주어경험자 심리동사 '무서워하다(fear)'를 Pustejovsky(1995)의 사건의미 분석에 근거하면 단순한 상태성 사건이며, 차사건(subevents)이 없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관심사는 (1b)와 같이 두 개의 차사건(subevents)이 있는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의 의미론적 형태론적 분석이며, 또한 이와 연관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과제이다.

---

2) 심리동사를 Croft(1993)는 'mental verbs'용어로, Talmy(1985)는 'experiencer verbs'용어로 사용하였다.
3) Grimshw(1990)는 'psychological csusatives'로 표시하고, Lin (2004)과 McGinnis(2000)는 'PsyCaus verbs'으로 표시하였다.
4) Grimshaw(1990) 참조.

2. 심리동사의 의미기능

2.1 심리동사에 대한 기존 논의

Levin(1993)에 의하면 대부분 심리동사에는 기동상(inchoative)의 변화가 없으며 예를 들면 '문안하게하다(abash), 괴롭히다(afflict), 악화시키다(aggravate), 실망시키다(dismay), 당황시키다(faze), 황홀하게 하다(entrance), 걱정하다(worry)'와 같은 심리동사들은 모두 기동상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2) a. The clown amuses the children. (광대가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
b.*The children amused (at the clown)

예문 (2)의 '즐겁게 하다(amuse)'와 같이 경험자 주어를 동반한 이런 동사들의 자동사 용법은 유일하게 중간 해석을 받아들인다.

(3) 중간단계의 전환(대부분 동사)
a. The clown amused the little children. (광대는 어린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
b. Little children amuse easily. (어린 아이들은 즐겁게 하기 쉽다)

예문 (3a)를 Lakoff(1971)는 심리동사의 특수한 속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본 논문은 주로 영향력 있는 연구 성과를 가진 Beletti와 Rizzi(1988), Pesetsky(1995)와 Arad(1998)의 관점을 기반으로 기술하려 한다. 이 논문은 심리동사의 주요 속성을 가장 먼저 논의할 것이며, 그 어떤 개체 심리동사의 분석에서도 속성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θ-역활이 통사구조에서 임의적인 위치에 매핑 됨을 가리킨다.

2.2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의 의미기능

많은 언어에는 주어경험자 심리동사와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 모두 존재한다. 사건구조면에서 주어경험자 심리동사는 단순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건과 연결성이 없다. 그러나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특히 '무서워하다(fear)'와 같은 주어경험자 심리동사는 상태(state)만 나타내지만 '겁먹게 하다

(frighten)'와 같은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는 사역상태(causative state)를 나타낸다.[5] '자극은 경험자를 심리상태에 들어가게 한다'고 Croft(1993)가 일찍이 언급한 바 있다. 즉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는 주어경험자 심리동사의 사역적인 대응대상이다(causative counterpart). 궁극적으로 이것은 주어경험자 심리동사(무서워하다)와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겁먹게 하다)가 평형을 유지하는 통사론적 분석문제이기도 하다.

어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주어경험자 심리동사는 보통 상태동사 혹은 정태동사(stative verb로 분류되는[6] 반면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는 사역동사로 분류되며 심리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7] Pylkkänen(2000)의 연구에 의하면 '겁먹게 하다(fighten)'유형의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는 '무서워하다(fear)'유형의 주어경험자 심리동사와 달리 필연적인 단계-층차(stage-level)가 있다는 것이다. 개체상태로 해석되는 심리상태는 동사 '무서워하다(fear)'가 어휘화된 것이여야 한다는 것이다[8]. '무서워하다(fear)'와 같은 주어경험자 심리동사는 하나의 어휘적 의미가 두 개 논항상태를 나타내는 사건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4) a. Template : x <STATE>
b. Thieves fear dogs. (도둑은 개를 무서워한다)
c. x <FEAR> y

위에서 < >는 상수(constant)를 나타내고, x와 y는 변수를 나타낸다. 그런데 '무서워하다(fear)'와 같은 동사의 상수범위에서는 두 개의 논항의 의미적 내용정보를 허락한다. 이 중 사건구조 형판(tamplate)은 (4)의 존재론적 범주상태와 연관되는 것이며 그것은 상태가 하나의 논항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논항은 단지 상수의 허락을 받기에 (4c)의 'y'선으로 표시하였다.

'겁먹게 하다(frighten)'유형의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는 상(aspectually) 적으로 (5a)는 완수상(accomplishments), (6a)달성상(achievements)을 나타낸다. 이것을 어휘 의미론적 표현으로 표시하면 (5b), (6b)와 같다.

(5) 완수
a. The bully (deliberately) frightened the boy. (깡패들은 (고의로) 소년을 겁먹게 했다)

5) Van Valin and Lapolla(1997) 참조.
6) Grimshaw(1990), Tenny(1994) 참조.
7) Croft(1993), Levin(1993), Pesetsky(1995) 참조.
8) Ogawa(2001)의 stage/individual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참조함.

b. [[x ACT] CAUSE [BECOME [y < FRIGHTENED >]]]

(6) 달성 / 통제없는 완수

a. The mask (*deliberately) frightened the children. (가면이 아이들을 (*고의로) 겁먹게 했다)

b. [[x CAUSE [BECOME [y < FRIGHTENED >]]]

예문 (5)는 전형적인 동작주/사건성(agentive/eventive) 심리적사역이고, (6)는 전형적인 상태성(stative) 심리사역이다.[9] 이와 같은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의 차이점을 아래에 설명을 하려 한다.

비록 모든 주어경험자 심리동사는 상태성를 나타내지만 일부 목적어경험자 동사도 상태성을 나타낸다. 즉 '걱정하다(concern)'가 상태성을 나타내지만 '성가시다(bother)'는 상태성도 나타내고 비상태상도 나타내기 때문에 상태성(stativity)을 가지고 심리동사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원인(cause) 개념이 두 종류의 동사를 구분하는 것과 관계된다고 가정 할 수 있다. Pesetsky(1995)는 '무서워하다(fear)'와 같은 주어경험자 심리동사의 비 경험자 논항은 반드시 심리상태의 실제적인 자극을 나타내지만 '겁먹게 하다(frighten)'와 같은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의 비 경험자 논항은 실제적인 자극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7) John fears war. (존은 전쟁을 무서워한다)

(8) A newspaper article frightened John. (신문기사가 존을 겁먹게 했다)

예문 (7)는 전쟁자체를 생각해서 John의 공포심이 유발된 것이다. 그러나 예문 (8)는 신문기사가 John을 겁먹게 하는 원인(cause)일 것이다. 그리고 공포심은 신문가시가 보도를 통해 논의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명시되지 않는 원인(cause)과 결과(result)의 관계는 전형적인 사역동사이다.[10] 그러므로 '겁먹게 하다'는 상태성과 상관없이 사역동사이고, 비 경험자 논항은 원인의 한 종류로 분석될 수 있다. 반대로 '무서워하다'는 비사역성(noncausative)을 나타낸다. 비 경험자 논항의 의미역할은 Talmy(1985)가 제안한 'Stimulus'에 대한 의미역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Target'과 'Subject Matter'에 대한 의미역할은 Pesetsky(1987,1995)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기에 참조하기 바란다.

이어서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의 세 가지 검출을 논의해 보자. 현재까지 '겁먹게 하다'동사가 행위자나 비행위자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을 위에서 충분히 하였고, 다음 예문에서

9) Grimshaw(1990) 참고.

10) Levin and Rappart-Hovav(1995, 17: 623-661) 참조.

보여주는 봐와 같이 '겁먹게 하다'유형 동사의 두 가지 용법은 동작주가 사역이 되는 것(agentive causatives)과 심리적 사역(psychological causatives)이 되는 것으로 나누어 묘사 된다[11]. 예문 (9-12a)는 비동작주 심리적 사역을 보여주고, (9-12b)는 일반적으로 동작주가 사역주가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9) a. The mask frightened the children. (가면이 아이들을 겁먹게 했다)
b. The man frightened the children.(그 사람이 아이들을 겁먹게 했다)
(10) a. The book amused the children. (책이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
b. The librarian amused the children. (사서가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
(11) a. The tricks amazed the children. (비결이 아이들은 놀라게 했다)
b. The magician amazed the children.(마술사가 아이들을 놀라게 했다)
(12) a. The cake delighted the children. (케이크가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
b. The baker delighted the children. (제빵사가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

예문 (9-12b)는 주어논항이 나타내는 참여자가 '일부로, 억지로'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자의 감정상태변화를 통제하는 능력도 있다. 이런 참여자는 분명한 동작주이다. 그러나 예문 (9-12a)의 주어논항을 나타내는 참여자는 동작주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주어논항의 의미가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 그룹 내 차이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겁먹게하다(frighten)'와 같은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에 세 종류의 검출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험자의 심리상태를 유발하기 위하여 동작주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여부, 둘째 경험자에게 심리상태 변화 존재 여부이다.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의 동작주 검출에는 동작주의 두 가지 의미자질 즉 [+생명(animate)]과 [+자유의지(volition)]와 같이 의도적인 경험자의 상태를 변화하는 행위이다.

(13) Minsu frightened Enhee deliberately / to make her go away.
(민수가 고의적으로 은희를 겁먹게 했다 / 그녀를 떠나게 했다)

동작성(agentive)의 검출에서 매트릭스동사는 예문 (13)의 에이전트가 지향하는 "고의적으로, 억지로"와 같은 부사수식을 받거나 '그녀를 떠나게 하다'와 같은 목적어부사어를 동반한다. 사건성(eventive)의 검출에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건이 경험자의 심리상태변화를 그 어떤 의도가 없이 일으킨다. 예를 들면

11) Grimshaw (1990) 참조.

(14) a. Minsu frightened Enhee unintentionally / accidentally.
(민수가 은희를 무심코/우연히 겁먹게 했다)
b. The explosion / the noise / the thunderstone frightened Enhee(*deliberetaly /*intentionally)
(폭팔/소음/우뢰가 은희를 *고의로 /*억지로 겁먹게 했다)

위와 같은 검출에서 (14a)는 '무심코, 우연히'와 같은 사건지향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14b)는 (13)처럼 '고의로, 억지로' 와 같은 동작주지향의 부사 수식 혹은 목적부사어를 동반할 수 없다.

상태성(stative) 검출은 전형적인 '심리'상태의 검출이다. 이것은 행위자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뿐더러 목적어경험자의 심리상태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반면에 경험자(목적어)는 자극(주어)에 의한 지각을 동반하며, [12]이런 지각이 경험자의 일부 심리상태를 실행하거나 변화시킨다.

(15) a. Minsu's haircut annoys Enhee(*deliberataly /*intentionally)
(민수 헤어스타일이 은희를 *고의로 /*억지로 짜증나게 했다)
b. Minsu's behavior / nuclear war frightened Enhee(*deliberataly /*intentionally)
(민수행동/핵전쟁이 은희를 *고의로 /*억지로 겁나게 했다)
c. This problem concerned Enhee (*deliberataly /*intentionally)
(이 문제는 은희를 *고의로 /억지로 걱정하게 했다)
d. Blood sausage disgusts Enhee.(*deliberataly /*intentionally)
(블러드 소시지가 은희를 *고의로 /*억지로 역겹게 했다)

예문 (15)을 통하여 우리는 상태성(stative)은 적어도 두 개의 특징이 동작성(agentive)과 사건성(eventive) 검출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상태성 검출에는 동작주가 없다. 즉 의도적인 혹은 통제 하에 자극으로 인한 심리적 상태 실행 혹은 변화가 아니고, 의도적인 혹은 통제 하에 경험자가 자극에 대한 지각도 아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무엇이(something)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무엇'은 자극에 내재된 고유성분일 것이고, 통제밖에 존재하며, 이 '무엇'이 경험자의 특정한 심리상태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흡사하게 경험자는 자극이 유발한 심리상태를 통제할 수 없다. 이 상황을 '걱정되다(concern)'로 설명하여 보면 명확하다. 동사 '걱정되다'가 내재하고 있는 상태성이란 상태변화의 단일점(single point)을 인코딩하지 않는 어휘특성이 있고, 경험자가 '무심한(unconcerned)'상태에서 '걱정

12) Pylkkänen(1997) 참조.

(concerned)'상태로 번갈아 교대되는 것을 가리킨다. 13) 다시 말하면 '무심함에서 걱정으로', '걱정에서 무심함'으로 상태변화가 반복해서 일어남을 가리킨다. 때문에 상태성 검출은 경험자가 자극을 감지하는 동안(혹은 그의 심리에 있는) 경험자가 처한 특정한 심리상태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둘째, 비상태성(non-stative) 검출에서 상태의 변화를 달성하면 동작주/사역주(Agent/Causer)는 임무를 완성하게 된다. 현재 새로운 상태는 이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상태성 검출에서 자극은 이런 독립적인 상태를 잡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상태를 동반한다. 이것은 동작성(agentive)과 사건성(eventive) 검출에서 자극은 심리상태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측면이다. 상태성 검출에서 자극은 심리상태에 내재된 고유성분의 일부이며, 이는 상태의 존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우리는 본다.

우리는 상태성 검출과 비 상태성 검출에 있어서 인과과계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인과관계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다. 적극적인 인과관계는 상태 변화의 원인이 되고, 반면에 상태성 인과관계는 동반상태(concomitant state)를 유발한다.14)

2.3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의 유형학적 사례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에도 모두 주어경험자 심리동사와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가 존재한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위에서 서술한 것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중국어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문 (16a)에서 경험자 '아이(xiaohai)'는 주어위치에 나타나고, '무서워하다(pa 怕)'는 주어경험자 심리동사를 나타낸다. (16b)의 경험자 '아이(xiaohai)'는 목적어위치에 나타나고, '겁먹게 하다(xia 吓)'는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를 나타낸다. (16)와 같은 심리동사 구문은 중국어에서 비생산적이라는 것이다.15) 그러나 예문 (16b)구조를 지나치게 일반화 하면 (17)과 같은 비문을 초래하게 된다. (CL-classification 분류사의 약자, ASP-aspect의 약자)

(16) a. xiaohai pa gou. (怕-小孩怕狗)
(아이는 강아지를 무서워한다)
b. Gou jin xia xiaohai. (吓-狗尽吓小孩)
(강아지는 늘 아이를 위협한다)

13) 이와 반대로 '놀라움(surprise)'는 상태변화의 유일한 순간이 있으며, 경험자는 갑자기 그 순간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 Arad (1998) 참조.
15) Zhao (2006) 참조.

(17) a.*Zhe chang yinyuehui shiwang wo.(失望-*这场音乐会失望我)
this CL concert disappoint me
(이 음악회는 나를 실망시킨다)
b.*Zhe ge xiaoxi jingya-le Zhangsan.(惊讶-*这个消息惊讶了张三)
this CL news surprise-ASP Zhangsan
(이 소식은 장싼을 놀라게 했다)

예문 (17)이 비문인 것은 '실망하다(shiwang 失望)'와 '놀라다(jingya 惊讶)'가 중국어에서는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중국어는 'shiwang 失望'과 같은 이음절(disyllabic)심리동사는 사역으로 사용할 수 없다.[16] 그러나 단음절 심리동사 '힘들게 하다(lei 累)'와 '귀찮게 하다(fan 烦)'는 사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단음절 심리동사의 사역용법에는 일정한 통사론적 제약이 있다. (18a)처럼 부정 명령문(negative imperatives)이나 (18b)처럼 속어적인(idiomatic) 표현에서 동목구가 사역으로 사용된다. 여기에서 'fan 烦'과 'lei 累'는 형식적으로 목적어를 동반하였고, 경험자도 존재하기에 이들을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굳어진 동목구 사이에 (19a-b)처럼 상(aspect) 표지 'le 了'을 삽입하면 비문으로 처리된다. 이와 같이 중국어 심리동사는 문장유형의 제약을 받으며, 이런 제약조건을 만족해야만 단음절 심리동사가 사역 의미를 나타내는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로 사용할 수 있다.

(18) a. Bie fan wo.(烦-别烦我)
(나 귀찮게 하지 말아요!)
b. Zhe zhong shi zhen lei ren. (累-这种事真累人)
(이 일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19) a.?Zhangsan zoutian fan-le wo. (烦了-?张三昨天烦了我)
Zhangsan yesterday bore-ASP me
(장싼은 어제 나를 귀찮게 했다)
b.*Zhe zhong shi lei-le ren. (累了-*这种事累了人)
this sort matter tire-ASP people
(이 일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16) 중국어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동사는 또 "zhenfen(excite)", "guwu(encourage)", "weixie(threaten)"것들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어 심리동사의 사역용법은 구문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고대중국어(Ancient Chinese)에서 ‘fan 烦’과 ‘lei 累’ 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사역으로 사용되며, 아래의 예문을 통하여 ‘고통을 받다(lao 劳)’, ‘놀라게 하다(jing 惊)’ 알 수 있다.

(20) a. Lao qi jin gu, e qi tifu.『맹자』(劳-劳其筋骨, 饿其体肤)
(뼈와 근육을 깎는 고통을 받고, 몸을 굶주리게 하다)
b. Yue chu jing shan niao.『春晓』(惊-月出惊山鸟)
(달이 떠서 산새를 놀라게 하다)

수많은 언어의 변화발전과정을 통하여 중국어는 단음절동음이의어(homophonous)를 처리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합성(compounding)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이음절단어가 생산되고, 그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단/활동(means/activity)을 나타내는 단음절동사와 결과(result)를 나타내는 단음절동사/형용사가 합성되어 새로운 사역동사를 구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중국어의 사역동사이다. 그러나 이런 합성과정에서 단음절 심리동사는 원래소유하고 있던 사역 의미를 상실하고 새롭게 합성된 동동구(V_1V_2)혹은 동형구(V_1A)구조 전체가 사역 의미를 할당받게 된다. 즉 사역의미는 전체 합성어 혹은 구성성분에 내포하고 있다는 Goldberg (1995)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예문 (21)의 심리동사 ‘귀찮게 하다(fan 烦)’와 ‘화나게 하다(qi 气)’는 수단/활동(means/activity)을 나타내는 동사 ‘보다(kan 看)’, ‘울다(ku 哭)’와 합성한 이음절(V_1V_2/V_1A) 조로 구성된 목적어경험자 사역형식이다. 이와 같은 합성구조는 고립어인 중국어 동사의 형태변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1) a. Zhe ben shu kan-fan-le Zhangsan. (看烦了-这本书看烦了张三)
this CL book read-trie-ASP Zhangsan
(이 책은 (장싼이 너무많이) 봐서 짱싼을 지겹게 했다)
b. Na jian shi qi-ku-le meimei. (气哭了-那件事气哭了妹妹)
that CL matter anger-cry-ASP sister.
(그 일은 여동생을 화나서 울게 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어 심리동사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사역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역동사로 사용되면 목적어경험자 심리술어의 기능을 나타낸다. 중국어에는 ‘shi 使, ling 令, rang 让’과 같은 사역동사가 존재한다. 예문 (19a)와 (19b) 비문으로 사용된 심리동사가 사역동사를 사용하면 (22a)와 (22b)처럼 사역표지가 있는 사역문이 된다.

(22) a. Zhe chang yinyuehui *shi* wo hen shiwang. (使+causee+失望)(这场音乐会*使*我很失望)
this CL concert make I very disppointed
(이 음악회는 나를 많이 실망시켰다)
b. Zhe ge xiaoxi *shi* Zhangsan hen jingya. (使+causee+惊讶)(这个消息*使*张三很惊讶)
this CL news make Zhangsan very surprise
(이 소식은 장싼을 놀라게 하였다)

사역을 나타내는 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휘를 사용한 사역(lexical causative), 사역형태소를 동반한 사역(morphological causative)과 사역구조를 사용한 사역(periphrastic causative)이 있다. 사역구조에는 반드시 사역동사가 있어야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shi 使, ing 令, rang 让'이고, 그 의미는 "get, have, make, cause"등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형태적 사역이 대부분이다. 한국어를 놓고 보면 형태소 "-i" 를 사용한 형태사역과 "key-hata"를 사용한 형태사역이 있다. 일본어는 형태소 "-se"를 사용한 사역이 대부분이다. 아래에 개괄된 표시를 보자. (Causer는 사역주, Causee는 사역동사의 영향을 받는 경험자, Nom-nominative case의 약자이고, Acc-accusative case의 약자이고, V-verb의 약자이고, Past-past tense를 나타낸다)

(23) a. Causer-Nom Causee-Acc V-yi-Past.
b. Causer-Nom Causee-Acc V-key-Past.
(24) Causer-Nom Causee-Acc V-se-Dec.

예문 (23)는 한국어 사역형식이고 (24)는 일본어 사역형식이다. 물론 사역동사와 형태소 사역이 나타내는 의미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5) a. Taro-ga Ziro-o odorokasi-ta. (太郎が次郎を驚かした)
(타로가 지로를 놀라게 하다)
b. Taro-ga Ziroo-o odorok-ase-ta. (太郎が次郎を驚かせた)
Taro-Nom Ziroo-Acc surprise-se-Dec.
(타로가 지로를 놀라게 하다)
(26) a. Taro-ga Ziroo-o taosi-ta. (太郎が次郎を倒した)
Taro-Nom Ziroo-Acc fall-Dec.
(타로가 지로를 넘어지게 하다)
b. Taro-wa Ziroo-o taos-ase-ta. (太郎が次郎を倒させた)
Taro-Nom Ziroo-Acc stop-se-Dec.
(타로가 지로를 넘어지게 하다)

예문 (25-26a)는 사역동사를 사용한 사역이고, (25-26b)는 형태소 'se'를 사용한 사역이다. 사역동사를 사용한(25-26a)의 주어가 사역과정에 참여함을 나타내고, 형태소를 사용한 (25b)의 사역에서 목적어경험자 '次郎'가 '太郎'에 의하여 놀라게 되었지만 '太郎'가 고의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며, (26b)에서도 목적어경험자 '次郎'가 '太郎'에 의하여 넘어졌지만 '太郎'가 직접 넘어뜨린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일본어의 형태소로 구성된 사역에서 주어는 사역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어는 이와 반대라고 하는Shibatani(1976)의 연구가 있다. 이 문제는 본 논문에서 기술할 주요문제가 아니기에 생략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7) a. chundung sori-ga ai-uil gepmek-key hay-etta.
thounderstone-Nom child-Acc fighten-key Past-Dec.
(천둥소리가 아이를 겁먹게 하였다)
b. iee munjea-ga Minsu-uil gekzhengha-key hay-etta.
thing-Nom Minsu-Acc concern-key Past-Dec.
(이 문제가 민수를 걱정하게 했다)
(28) gaminari-wa Ziroo-o kowagara-se-ta. (雷は次郎を怖がらせた。)
천둥-Nom 지로-Acc 겁먹다-se-Dec.
(천둥이 지로를 겁먹게 하다)

예문 (27a-b)는 앞에서 설명한 예문 (15)의 설명에서 '겁먹게 하다(frighten)'과 '걱정하다(concern)'와 같은 의미로 기술 할 수 있으며, 일본어에서도 예문 (28)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3.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의 통사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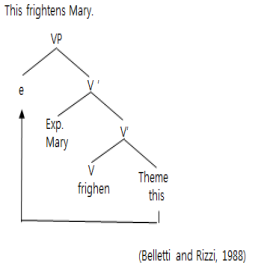
심리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현상들이 신속하게 바뀌는 것이다. 즉 동사로 인하여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바뀐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9) a. Minsu fears the cat.
b. The cat frightens Minsu.

예문 (29)는 경험자와 주제가 연관되어 있다. 경험자 '민수'는 (29a) 주어에서 (29b) 목적어 위치로, 반대로 '고양이'는 목적어에서 주어의 위치로 이동 되었다. 이런 현상을 Lakoff(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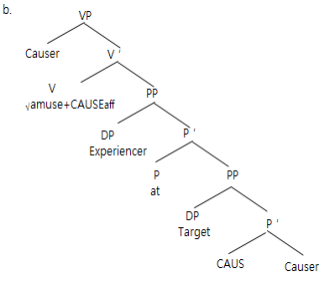
는 ‘flip’현상이라 칭하였다. 만약 주제계층원칙(thematic hierarchy)과 세타할당통일가설(uniformed theta assignment hyphthesis-UTAH)[17]을 주장한다면 예문 (29)는 주제역활과 구조위치이론에 도전장을 던질 것이다. (29)는 한 쌍의 유사한 사건을 기술하였다. 경험자와 주제는 서로 다른 통사적 위치에 매핑 되었다. 경험자 혹은 주제는 어떤 때에는 주어의 위치에 투사되고 어떤 때에는 목적어 위치에 투사된다. 이런 연구는 논항의 위치와 연결된 연구항목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도 많이 이루어 졌다. 특히 Pesetsky(1995)의 성과가 가장 뚜렷하다. Belletti & Rizzi(1998)는 세분화된 구문(fine-grained syntax)에 깊이 들어가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는 비대격동사(unaccusative)라고 주장하였다. (30a)처럼 자극은 V의 시스터에서 생산하고, 경험자는 V’와 연결된다.

(30) a.



(Belletti and Rizzi, 1988)

b.



(30a)을 통하여 볼 수 있다시피 경험자 역할은 통일적으로 고정된 위치에 매핑되며, 이것이 심리동사의 통사적 특징이라 하더라도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를 비대격동사로 해석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왜냐하면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는 비대격동사라면 피동구문에서 사용되면 안 된다. 그러나 ‘철수는 영희의 행동에 화가 났다(Chelsu was angered by Younghee’s conduct)’ ,‘철수는 소음에 의하여 놀라게 되었다(Chulsu was firghtened by strange noises)’와 같은 피동문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게다가 ‘민수가 문을 열었다(Minsu opened the door)(타동사)’, ‘문이 열였다(The door opened)(비대격)’에서의 ‘열다’와 ‘가면이 아이들을 겁먹게 했다(The mask firghtened children)(타동사)’, ‘*아이들이 겁먹게 했다(*The children frightened)(*비대격)’에서의 ‘겁먹게 하다’를 비교하여 보면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는 비대격동사로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사성도 없고, 단일 논항에 변화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Belletti & Rizzi(1998)는 자극은 직접목적어로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 주어 위치로 이동하며 이렇게 이동되면 사역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통사-어휘 측면에서 보면 사역은 유일

17) 다시 설명하자면 완전히 같은 역활은 반드시 같은 구조위치에 할당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가리킨다.

하게 외부논항과 연결되기(내부논항은 격고 있는 변화와 연결됨) 때문이다[18]. 특히 Levin과 Rappaport-Hovav(1995)는 비대격동사를 논함에 있어서 사역논항은 주어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였고, 사역의미와 연결된 동사는 사역논항을 주어의 위치와 직접 연결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비대격동사에 대한 예문을 통한 해석은 주어경험자와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의 다름이 후자의 사역적 해석을 기술하지 못한 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낮은 위치 주제를 높은 경험자를 지나 주어 위치로 이동한다는 것은 상대적 최소성 혹은 근거리인력(attract closest)을 위반하는 것 같기도 하다. Pesetsky(1987,1995)는 '사역주>경험자>타겟/주체사물'의 순서로 주제 계층을[19] 기술하였다. 그러나 (30b)에서 보다시피 사실은 사역주가 경험주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30b)에서 사역주는 한 세타위치에서 다른 세타위치로 이동이 바로 자극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험적인 증거라도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이런 이동이 이론적 함의는 무엇일까도 여운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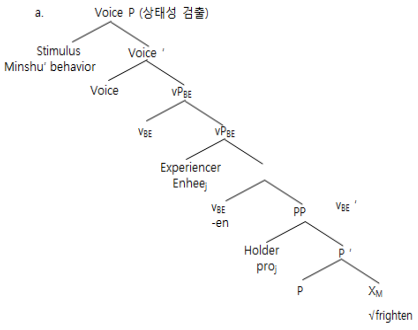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상태성 사역주는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와 관계되는 논항의 통사적 구조라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예문 (31a)의 주어는 파생된 외부논항이며, 진정한 논항이 아니기에 피동문에 사용할 수 없다(31b). 반면에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는 피동화/수동화(passivization)을 격고 있을 수 있다(32b).

(31) a. The man arrived. (그가 도착했다)
b.*The man is arrived.
(32) a. Minsu's behavior frightened Enhee. (민수의 행동이 은희를 겁먹게 했다)
b. Enhee was frightened by Minsu's behavior. (은희는 민수의 행동으로 인하여 겁먹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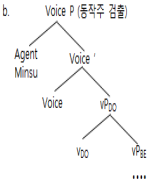
상태성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의 수동화 가능성은 상태성 사역주가 증거이다. 마치 기타 통상적인 타동사의 외부논항처럼 진정한 외부논항을 가리키는 것이지 파생된 외부논항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연구에 기초하여 목적어 경험자 심리동사의 구조분석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v-높은 위치동사, V-낮은 위치동사)

18) Tenny (1887) 참조.
19) Pesetsky는 테마계층는 다음과 같다. 경험자의 테마계층에서 조건을 아래과 같이 제안하였다. 'Causer>Experiencer>Target/Subject Matter'

(33)



"fright"의 상태이며, 은희는 경험자이고, 민수의 행동이 자극이다.



"fright"의 상태이며, 은희는 경험자이고, 민수의 동작주이다.

(33b)에서 vP_{BE}의 연결구조는 버려져 있고, 이것은 (33a)에서 낮은 위치의 vP_{BE}와 같다. (33a)와 (33b) 의 유일한 다른 점은 전자가 원인이 된 사건이 상태인데 그것은 '민수의 어떤 행동의 속성'이며, 반대로 후자에서는 원인이 되는 사건은 '민수가 동작주로서의 활동'이다. '민수'가 '은희'를 겁먹게 한 일, 그것은 (33b)와 같이 동작주 검출이다. 이 두 상황이 보여주는 특정한 구조배치는 한정되지 않고/명시되지 않는 중심어(head)가 수반되며, (33a)에서 높은 위치의 v_{BE} 와 (33b)의 높은 위치의 v_{DO}는 위 동사가 투사된 것이다. 이는 단지 일반원인(generic cause)의 의미를 전달한다. v_{BE}의 사례에서 상태는 다른 차사건을 실현하며, 이것을 'x로 인한 어떤 속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함리적으로 보인다. v_{DO}의 사례에서는 활동 루트가 한정되지 않았기에 다른 사건과 참여하는 논항이 없으며, 전체구조를 'x 원인이 되는...' 라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인과관계로 연결된 차사건은 유연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33b)를 사용하여 민수가 철수에게 시켜 은희를 위협하여 은희를 겁먹게 한다는 시나리오 기술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보어의 목적어 경험자 심리동사의 의미적 통사적 행위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의미론적 기능면에서 세 가지 검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태성 검출과 비상태성 검출인데, 비상태성 검출에는 동작성과 사건성이 있다. 동작성(agentive) 검출에서 매트릭스동사는 에이전트가 지향하는 '고의적으로, 억지로'와 같은 부사수식을 받거나 목적어 부사어를 동반한다는(예13) 결론이 도출되고, 사건성(eventive) 검출에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건이 경험자의 심리상태변화를 그 어떤 의도가 없이 일으킨다(예 14)는 결론을 얻었다. 상태성(stative) 검출은 전형적인 '심리'상태 즉 행위자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뿐더러 목적어경험자의 심리상태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 반면에 목적어경험자는 자극(주어)에 의한 지각을 동반하며, 이런 지각이 경험자의 일부 심리상태를 실행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예 15). 이런 심리상태의 실행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상태성 검출에는 동작주가 없다(의도적인 혹은 통제 하에 자극으로 인한 심리적 상태 변화가 아닌, 의도적인 혹은 통제 하에 경험자가 자극에 대한 지각도 아닌). 자극에 내재한 통제밖에 존재하는 '어쩔 수 없는' 고유성분인 '무엇'이 경험자의 특정한 심리상태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경험자는 자극이 유발한 심리상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심리동사의 의미적인 분석이다.

통사론적 위치이동을 통한 사건해체로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의 사건구조가 통사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겁먹게 하다(frighten)'와 같은 목적어 경험자 심리동사의 상태성 검출과 사건성 검출은 통사 트리(33a)를 통하여 '겁먹은 상태가 존재하고', 이 상태 속에서 '은희는 경험자이고' '민수의 행동은 자극'이라는 합리적인 기술이 도출되었다.

【參考文獻】

Arad M. 1998. VP structure and the Syntax-Lexicon Interfa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College Londen.
Belletti A. Rizzi L. 1988. Psych-verb and Θ-theor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6: 291
Goldberg A. 1995. Constructure: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Kyumin Kim. 2011. High applicatives in Korean causatives and passives. Lingua. 121: 489-510
Levin B. Rappaport-Hovav M. 1986. The Formation of Adjectival Passives. Linguistic Inquiry
Levin B. Rappaport-Hovav M. 1995. Unaccus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Mass.: MIT Pre
Levin B. 1993. English Verbs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Lin J. 2004. Event Structure and the Encoding of Arguments: The Syntax of the Mandarin and English Verb Phrase. Doctoral Dissertation, MIT.
Li Y. 1995. Then Thematic hierarchy and causativity. Natru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3:255-282.
Ogawa S. 2001. The stage/individual distinction and (in)alienable posession. Language. 77:1-25
Pesetsky D. 1987. Binding problems with experiencer verbs. Linguistic Inquiry 18:126-140.
Pesetsky D. 1995. Zero Syntax. Experiencers and cascades. Cabridge, Mass. MIT Press.
Pustejovsky J. 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47-82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ss.:MIT Press.
Pylkkänen L. 2000. Representing causatives. In B. Jackson, and T.
Matthews(eds.), Proceeding of SALTX(Semantics and liguistic Theory), Ithaca, NY.:Cornell Uneversity, 127-144
Pylkkänen L. 2002. Introducing Argument. Doctoral dissertation. MIT.
Song H. 2005. Causatives and Resultatives in Korean. Doctoral dissertat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Sugioka Y. 2000. Transitivity alternations in de-adjectival verbs. Papers presented at the COE International Symposium held on Dec. 9-10, 2000, at Kand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udies.
Talmy L. 1985.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Tshopen(ed.). Language T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57-149.
박소영(2013)「한국어 통사사동의 세 유형」『현대문법연구』74호
张豫峰(2008)「现代汉语表致使态的使成句分析」『汉语学习』
_____(2009)「现代汉语使动句的完句成分考察」复旦学报(2009.05.25.)
朴乡兰(2015)「汉语使成结构的发展及其类型学解释」『汉语学习』
_____(2010)「近代汉语表使役与表被动的"教/叫"句研究」北京大学博士学位论文
熊仲儒(2012)「致使范畴"以"与"以"字处置」『语言科学』第一期
胡裕树·范晓(1995)『动词研究』河南大学出版社
赵杨(Zhao, Yang)(2006)『使动及其中介语表征』北京大学出版社

논문투고일 : 2018년 01월 02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18년 02월 07일
2차 수정일 : 2018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2월 19일

<要旨>

使役句硏究小考

－英·中·韓·日 心理動詞 対照를 中心으로－

이영희

본 논문은 주어경험자 심리동사와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는 다른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시하였다. 주어논항의 의미가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의 내부 차이점을 결정 하는 주요 기능임을 파악하고 "겁먹게 하다"와 같은 목적어경험자 심리동사의 동작주, 사건성, 상태성 검출을 위하여 두 가지 속성이 기능함을 알게 되었다. 즉 경험자의 심리상태를 유발하기 위하여 동작주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여부와 경험자에게 심리상태의 변화가 존재 여부. 이와 같은 기능은 상태성 검출에서 자극은 심리상태에 내재된 고유성분의 일부이며 이것이 상태의 존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유형학적인 검증을 통하여 사역형태소를 통한 심리동사가 사역의미를 나타내고, 이런 심리동사는 또한 사동화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 Study of Causatives Inquiry

－Focusing on the English, Chinese, Korean, and Japanes Psychological Verbs－

Lee, Young-Hee

This paper argues that subject-experienced psychological verbs and object-experienced psychological verbs have different meaning functions. The meaning of the subject argument is proved the main function of interpreting the internal differences of the object experienced psychological verbs and that the two properties of the object psychological verbs such as "fightened"s agentive, eventive, stative reading. In other words, whether there is an Agent, which deliberately does something in order to bring a mental state in the experiencer; whether there exists a change of (mental) state in the experiencer. This function, on the stative reading the stimulus is an inherent part of the event of mental state and that i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existence of the state. Through typological examination, psychological verbs through the morphological causative showed the meaning of causative meanings, and these psychological verbs can undergo passivization.